



주 제:	“주님을 만남”	“연중 제 31 주일 (다해)	2007년 11월 4일
복음 묵상:	루카 19,1-10	지혜 11,22-12,2	2 테살 1,11-2,2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기에 인간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죽음이 있기에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세관장이며 부자였던 자캐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군중에 가려 또 키가 작아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자캐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있게 보이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자캐오, ‘하고 싶은 일’ 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에 사로잡혀 돈과 지위, 그리고 그럴싸한 직업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자캐오, 그는 어쩌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자캐오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두려움과 후회와 싸우고, 의미와 사랑과 용기를 추구하며 상처와 상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을 벗어 던집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진솔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런 자캐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캐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씀이 자캐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자캐오는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인천 지성용 신부님 강론 중에서)

수요 기도회		2007년 10월 31일(수요일)
진행: 신 미카엘라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0명
복음 묵상: 요한 1서 3장 24절		

**나눔**

- \* “샤르트르”등등 신학철학자들은 생애동안 행복하게 사는것을 추구, 죽음 직전에는 죽음을 두려워 했는데, 우리는 가는곳이 분명하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곳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야한다. 주님을 선택한 우리는 샤르트르같은 신학철학자보다 우리가 더 현명, 두려워 하지 말고 영원한 길로 우리함께 갑시다.

**예언 말씀**

- +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누어라 마음껏 나누어라 너희가 가진 모든것은 내가 준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겠다 나누어라
- + 모든 근심 다버리고 무거운 짐진자야 내결에 와 쉬어라
- +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태워버릴것이다 그러니 항상내결에 머물러라
- + 너희는 내자녀들이니 내마음을 닦아라 내마음은 양순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도 양순하고 겸손 하여라
- +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참석 : 전 막달레나, 정 멜라니아,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이 캐롤린  
 김 맥시밀리언, 김 빅토리아, 박 소피아, 신 미카엘라, 박 세실리아, < 10명 >

## 공지사항

1. **환영** 새로운신 분: 이승희 캐롤린 650-815-5373  
1090 Tanland dr #110 Palo Alto, CA 94303
2. 12월 첫째주 <12-2> 총회. 시간: 5:00시 장소: 친교실
3. 11월 16일 <금요일> "은혜의 밤" 있을 예정

+ 복음 [루가 19,1-10]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 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갔다.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 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 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11월 1일부터 11월 8일 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 :

1. 대사는 용서하다, 탕척하다는 뜻이니, 교황이나 혹은 주교가 성교회 보고에서 은사를 퍼내어 교우들의 죄보속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죄보속 또는 죄의 잠벌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영벌이요 둘째는 잠벌입니다.. 범죄후 고해성사를 받거나 혹은 상등통회를 받으면 죄의 악은 사해지나, 잠벌은 남아 있어서, 현세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하니, 지금 말하는 대사는 이 잠벌을 면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3. 대사를 얻는 규칙 :
  - 대사를 얻으려면 세가지 규칙을 지킬 것이니,
  -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니,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거나 상등통회\* 를 받을 것이요,
  - 대사를 얻을 뜻을 두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5.3)